

한국어의 시련과 영광 그리고 꿈

이익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우리 세대가 오늘날의 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 머리말에서 한 말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 한국어는 이제 결코 한반도 안의 언어가 아니다. 이 놀라운 발전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솟곤 한다. 초등학교에 나는 내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였다. 우리말을 쓰면 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소변이 마려워도 말 한 마디 못하던 시절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우리 모국어가 제 나라 안에서도 기를 펴지 못했던 상처의 흔적은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적잖이 남아 있습니다. 저보다 앞선 세대들 중에는 지금도 일본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머리에 더 쏙쏙 잘 들어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전북대학교에 가 있을 때 한국어를 전공하는, 그래서 한국어가 능숙한 일본 학자가 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모임에서 그분과 일본어로 말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살아가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분들을 지금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강릉에서 방언을 조사하면서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활동이 많지 않았던 촌로(村老)들에게까지 일본어 잔재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양파’를 ‘다마네기’라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추에 알이 박히면 ‘다마’가 앉았다 하고 그런 배추를 아예 ‘다마배추’라 하였습니다. 그때껏 못 들어 본 ‘도다이’도 썼는데 ‘등대’를 가리키는 일본어였습니다. ‘모양새’가 없다는 것을 ‘가다찌’가 없다고 하고, ‘모양’이나 ‘깡패’를 ‘가다’라 하는 것은 흔히 듣는 말이지만 “지금 하는 ‘가다’를 보면 내년은 안 되겠어”라는 데 까지 ‘가다’를 썼습니다. ‘계(契)’ 모임의 ‘오야’는 거의 우리말만큼이나 당당하였습니다.

우리 강토가 얼마나 철저히 일본어로 뒤덮여 있었으면 그 36년의 두 배가 넘는 이제까지 그 뿌리가 이토록 깊게 박혀 있을까, 우리 모국어가 겪은 시련이 엄청나게 컸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

모두에 인용했던 글은 『한국의 언어』(신구문화사, 1997)의 머리말인데, 이 책의 원고는 애초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한국의 문화를 미국의 고급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어 외에 문학, 역사, 종교, 음악, 미술 등 11개 분야에 걸쳐 책을 내는 기획의 저본으로 쓴 것입니다. 그

것이 2000년에 뉴욕주립대학출판부(SUNY Press)에서 *The Korean Language*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는데 그 원고를 집필할 때의 흥분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머리말에도 나타나 있듯이 제 나라에서조차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모국어를 선진국의 선진국인 미국 땅에 알리기 위해 책을 쓴다는 일이 사람을 그렇게 들뜨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미국 메릴랜드(Maryland) 대학교에 이 책의 번역을 맡은 로버트 램지(S. Robert Ramsey) 교수를 돕기 위해 가 있을 때 교포 2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인 NAKS(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모임에 몇 번 초빙되어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방미 목적을 듣고는 그 영어판 이전에 한국어판을 책으로 낼 수 없겠느냐는 희망들이 간절하였습니다. 귀국하여 마침 국립국어연구원 일을 맡게 되면서 특히 과거 공산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책이 필요할 듯하여 검사검사 출간하게 된 것이 『한국의 언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책을 자국어로 번역하겠다는 일이 다투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작은 그때 한국에 유학 와 있던 터키 학생이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 터키어판 출간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일본 천리(天理)대학교 조선어과 대학원에서 이 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때그때 수업 받은 부분을 일본어로 번역해 오라는 숙제를 한 다면서 한 학생이 이왕이면 이 책 전부를 자기가 일본어로 번역하게 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2004년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 교수의 감수로 대수관서점(大修館書店)에서 일본어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어 러시아어판이 모스크바에 ‘삼일문화원’을 설립하고 러시아에 한국 문화 전반을 주로 한국의 문학 작품의 번역을 통해 알리려고 노력하던 이형근 목사의 주선으로 2005년 모스크바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판이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Frankfurt Book Fair)’을 한국이 주관하면서 우리나라 각 분야의 대표작 20권을 선정하여 독일어로 번역하는 사업에 『한국의 언어』도 뽑혀 그해 함부르크와 서울에서 동시에 출간되었고, 중국에서는 몇 군데에서 경쟁이 붙었는데 해방군외국어학원의 장광진(張光軍) 교수 번역으로 2008년 북경 세계도서출판공사(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앞의 머리말에서 “한국어는 이제 결코 한반도 안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미국 한 곳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갑자기, 좀 과장하면 세계만방에 한국어를 소개하는 책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앞 다투어 이런 번역서를 내려고 한 것은 그 나라에 이미 한국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의 예문은 원문대로 한글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 한글을 한번이라도 더 눈에 익히게 하고 싶어서기도 하였는데 번역본의 한글 예문을 보면 지금도 깊은 감회가 일곤 합니다.

3.

어찌 보면 모두 꿈만 같은 일인데 둘러보면 현실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에 와 사는 외국인은 으레 한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외국인을 두고 “그 친구 코 한번 되게 크네”라 하니 “코가 커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그래서 떠돌겠지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작년인가 한글날 행사의 사회자 둘 중 한 명은 외국인이었는데 얼굴을 보지 않으면 외국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우리말이 능숙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다투어 개설하고 한국어 보급을 위해 설립된 세종학당이 나가 있는 나라도 2021년 기준 82개국(234개소)에 이르렀습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치는 인원이 1년에 2021년 기준 33만 명(그중 합격자가 16.9만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어의 이런 신장(伸張)은 사실 우리가 기대했거나 예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발사태였고, 그야말로 급발진이요 과속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어 학자들은 전혀 대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당한 현상입니다. 일찍이 한 번도 머릿속으로나마 떠올려 보지 않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그보다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영어를 두고 서나 ‘제2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와 같은 이름을 듣던 낯선 세계를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허둥지둥 개척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부지런한 국민성 덕분에, 그야말로 ‘빨리빨리’ 정신으로 각종 교재도 만들고 국문학과가 아닌 ‘한국어과’도 신설하여 일꾼도 길러내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나 그것을 발전시킨 ‘세종학당’과 같은 기구도 세우면서 지금은 많은 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국어를 외국에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우리나라만큼 활발히 하는 나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런데 이제 급한 불을 끄고 좀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가 미처 해 놓지 못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한 마디로 기초 작업이라 할 만한 것들입니다.

한 작은 예로 중국 산둥(山東)대학의 한국어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안(西安)에 있는 대학에 막 부임해 간, 잠깐 동안의 제 제자가 ‘노랳다’나 ‘하얏다’가 ‘노라니/노라면’ 및 ‘하야니/하야면’으로 활용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알겠는데 ‘노래서/노랬다’ 및 ‘하애서/하엿다’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설명을 이메일로 요청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야 어디 찾아보면 나오지 않겠느냐고 하려고 여기저기 뒤져보아도 어디에서도 마땅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 나름으로, 말하자면 독학을 해서 답을 해 주었는데 극히 기초적인 이런 것들이 그때껏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ㅎ변칙활용’을 찾아보니 ‘히읇불규칙활용’에 가보라 해서 가니(‘ㅎ’ 대신 ‘히읇’이라 쓰는 것도 부자연스러운데) “일부 형용사에서 어간의 끝 ‘ㅎ’이 어미 ‘ㄴ’이나 ‘ㄹ’ 앞에서 줄어 활용하는 형식. ‘파랳다’가 ‘파라니’, ‘파라면’으로, ‘노랳다’가 ‘노라니’, ‘노라면’으로 변하는 것 따위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랳다’ 향이나 ‘하얏다’ 향의 표제어 뒤에 붙은 활용정보에는 각각 “노래, 노라니, 노랳소”와 “하애, 하야니, 하얏소”가 있어 ‘노래’와 ‘하애’가 들어 있으면서 왜 그런 모양으로 활용하는지 그 근거는 오리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대단하다고 우러러보면서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던 외국인인, 특히 저에게 이메일로까지 질문을 보냈던 교수 같은 이들이 이런 장면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서/노랬다’나 ‘하애서/하엿다’는 ‘ㅎ’이 빠지는 것 외에 ‘ㅏ/ㅑ’가 ‘ㅐ/ㅙ’로 바뀌는 현상까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그 원리를 다 설명해 주기는 어렵겠지만(이것은 ‘하다’가 ‘해서/해요/했다’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되는 현상이고, 그것은 또 ‘갈애서/갈애요’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서 결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현상은 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불안해하는 일은 한국어교사의 자질 쪽으로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겪은 일인데 한국에서 한국어학당 강사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도 오랫동안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던 분이 딸이 ‘게’를 사 달라고 해 시장에 갔다가 마땅한 것이 없어 못 사고 나중 다시 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한 마리를 사 왔다고 해, 제가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 남편 램지

(Ramsey) 교수가 저 사람이 ‘개’와 ‘게’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과연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어 교사 중 몇 퍼센트나 ‘개’와 ‘게’를 정확히 구별해 발음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내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자기들은 멀쩡히 구분하는 발음을, 철자도 분명히 ‘개’와 ‘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교사가 잘못 발음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예전에 ‘바람 풍(風)’의 ‘람’을 제대로 발음 못하는 서당 훈장이 “나는 ‘바담 풍’ 해도 너희들은 ‘바담 풍’해라고 했다는 교사가 생각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잠시만 둘러보아도 우리가 아직까지 해 놓지 못한 기초 작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국어사전의 예문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당달봉사’를 찾으면 “=청맹과니”라고만 나오고 예문이 없습니다. 지금 말뭉치에서는 어떻게 모르겠으나 그 당시 말뭉치에서는 ‘당달봉사’가 쓰인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우(祠宇)’⁹를 찾으면 “=사당(祠堂)”⁶이라 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방언조사를 다니면서 그동안의 국어 연구가 화단에 있는 화초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야생화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이것이야말로 살아 숨쉬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달봉사’도 쉽게 들을 수 있었고, ‘사우’는 ‘사당’보다 오히려 더 널리 쓰고 있었습니다. ‘죽살다’는 어느 사전에서나 고어로 되어 있고 고어사전을 비롯하여 어디서나 두시언해(杜詩諺解)에 나오는 “그딤 이제 죽살 짜해 가느니” 하나만을 용례로 하여 그 뜻풀이를,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기픈 설우미 中腸에 迫切히애라”만 보아도 바로 파악되는 의미를, “죽고 살다”라고 무성의하게도 기계적으로 해놓은 것을 너도 나도 그대로 베껴 왔는데 오히려 방언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다’라는 제대로 된 용법을 들려주었습니다.

말뭉치는 어쩔 수 없이 구어(口語)보다는 문어(文語)에 편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설 등의 대화 장면이나 희곡 작품에서 구어 자료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구어는 얼마간 정제된 것들이고 비중도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구어는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화단에 있는 화초”라 하였지만 틀에 잘 맞추어진 것들만 뽑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말뭉치가 구어 쪽으로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곧 국어를 더 다채롭고 풍부한 언어로 키워 나가는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에 있을 때 서울말 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방언은 부지런히 수집하면서 정작 표준어의 바탕이 되는 서울말은 그때까지 본격적으로 조사된 일이 없어서였습니다. 늘 자주 쓰고 듣는 말인데 굳이 따로 조사를 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퍼져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막상 조사를 해 놓고 보니 연결어미 ‘-고’가 표준어와 달리 주로 ‘-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 등 새로운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렇게 본격적인 조사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밀히 조사하면 특히 어휘 쪽에서 지금껏 발견하지 못한 새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예문이 없었던 ‘당달봉사’나 ‘사우’ 같은 것도 어디선가 나타나리라 기대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전들이 거의 무시하고 있던 예문을 충실히 모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새 이정표를 세웠는데, 그럼에도 앞에서 몇 예를 보았듯이 아직도 예문이 없는 항목이 많습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예문 하나 찾을 수 없는 단어는 사전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전에 올리려면 그 예문을 찾을 때까지는 보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어사전들의 단어에도 다 예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는 이미 사어(死語)가 되어 고어사전으로 보내야 하겠다고 할 단어들도 과거 문헌

에 쓰였던 예문을 찾아야 사전에 오를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방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비추었습니다만, 한 예를 더 보자면 ‘독물’도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질은 빛깔의 남빛”이라는 풀이뿐 예문이 없는데 강릉방언에는 ‘치마’의 한 종류로 ‘독물치매’를 비롯하여 ‘독물’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낙종(諾從)하다’, ‘인권(引勸)하다’, ‘취맥(取脈)하다’, ‘답품(畚品/踏品)과 같은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이런 단어도 있는가 싶도록 낯선 단어임에도, 그래서인지 국어사전에 예문도 없는 희귀한 단어들을 촌노들이 척척 쓰고 있었습니다. ‘천추(遷推)하다’, ‘자산(赭山)’ 따위는 각각 홍명희, 이기영 소설에서 뽑은 예문이 있긴 하지만 시골의 일상 대화에서 이런 생소한 고급 어휘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 양:반이 ‘감찰시집 논: 답품 땡기구 ‘이랬잖아. 답품이라는 기, 인재 실태조사 땡기는 기지. (-) 답품이라구 ‘그랬아. 답품. 논: 답(*畚) 재. / ‘여깁 마커 절논이니, ‘하머 베거 누리’하문은, 오:대산 ‘절에서 인재, ‘여개는 ‘삿갓 씨지마는, ‘먼 중:덜이 씨는 기 있잔가, ‘그래 그그 씨구서 답품하러 와. 인재 누:워 ‘논에서, 인재 베거 열:매침 잘스’대:서 열:매 나갬다 지정 ‘매기느라구.)

좀 복잡한 경우로 ‘면내다’도 있습니다. “쥐나 개미, 게 따위가 구멍을 뚫느라고 보드라운 가루 흙을 파내어 놓다”로 풀이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기본의미인데 여기에는 예문이 없고,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인 “남의 물건을 조금씩 조금씩 훔쳐 축을 내다”에는 만들어 넣은 것이긴 하나 예문이 있습니다. ‘쥐’ 항에 가면 ‘쥐 면내듯’이란 속담이, 거기에도 예문은 없이, 올라 있는데, 이 속담도 바로 이 후자의 예문인 셈입니다. 그런데 강릉방언에서는 ‘면내다’를 ‘메스내다’라고 하면서(‘메스내다’의 ‘메스’는 ‘면내다’의 고형 ‘멧내다’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끄니다) “쥐가 사방 메스내서 연기가 구멍마다 나온다”는 기본의미로서의 용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서울 일원에서도 이런 용례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줍니다. 앞의 뜻풀이에서 ‘개미’나 ‘게’를 넣었는데, 사실 보드라운 흙을 파내어 쌓아놓는 것은 쥐보다는 개미에게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면내다’가 ‘개미’와 어울리는 예문까지도 어디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언의 가치를 높이 부르짖으면서도 방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듯합니다. 방언을 낱날이 깊이 파고 들면 우리말을 한결 활기차게 할 보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서울말에서도, 또 글에서도 더 폭넓게 뒤지면 많은 예문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화초밭에 갇혀 있지 말고 온 산하(山河)를 샅샅이 뒤지자는 자세가 필요할 듯합니다. 사실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는 방언 자료에 <충북>이니 <전남>이니 하는 분포 정보가 얼마나 불안한 정보입니까. 우리나라 식물도감에서 어디어디에 분포한다는 기술이 요즘 극성스러운 야생화 동호인들 덕분에 얼마나 크게 수정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극성파들이 나와 방언 하나의 분포도 정밀히 수정되고, 무엇보다 예문 없는 빈자리가 충실히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예문 채우는 일이 우리가 가장 시급히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우리가 유념할 일은 양적인 팽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지금 국어사전들을 보면 문법적으로 틀린 예문도 들어 있고, 더욱 딱한 것은 예문에 쓰인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쓴 경우도 있습니다. ‘까치놀’항에서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예문 자체도 비문법적이어서(*“면바다의 까치놀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그늘진 얼굴 속에서 눈망울이 빛나고 있었다.”-한승원, 『해일』) 인용하기에 부적절하지만 적어도 그 예문에서는 파도의 뜻으로 쓴 것을(*“석양에 멀리 바라다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에서 희번덕거리는 물결” <이 소설에 쓰인 어촌 속담과 어려운 말 풀이>-제2권 권말) 하늘의 노을로 잘못 알고 ‘까치놀’의 뜻풀이도 그쪽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좀 가벼운 것으로 김유정의 소설에 쓰인 ‘버덩’과 ‘내달다’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방언의 용법으로 읽어야 앞뒤가 맞는데 상당히 다른 풀이로 되어 있는 표준어 ‘버덩’과 ‘내달다’의 예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정래 소설의 ‘나무전’도 국어사전 ‘나무전’의 뜻풀이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모아도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소양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 요원을 양성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자료를 모으며 국어사전을 키우는 경우 특히 이 점에 유의해야 할 듯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도 마음 놓고 자랑할 국어사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 어느 나라를 떠올리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게 되는 사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보다 총력을 기울여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랑할 만한 사전이 있을 때 한국어 세계화도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5.

끝으로 한글에 대해서도 몇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말을 외국인에게 보급할 때 한글은 더없이 든든한 무기입니다. 한글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가르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저절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실제로는 잘 모르고 그저 들뜬 마음으로 맹종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우수한가라고 물으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니까 하는 식입니다. 못 적는 소리가 없어 어떤 언어를 표기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하는 것도 허황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발음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당장 영어의 th음을, 더욱이 그것을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여 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하던 소수 민족에 한글을 보급하는 일을 두고 대단한 일인 듯 들뜨는 것도 국민들로 하여금 한글을 그저 겉으로 허풍을 부리게 하는 데 일조하는 듯합니다.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따라서 우리말이 우수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도 딱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우수하다면 로마자로 표기하여도 우수하고, 우리말이 저급한 언어라면 한글로 적어도 저급하긴 마찬가지겠지요. 한국어와 그 표기 수단인 한글을 혼동하는 것부터가 후진성의 한 표본일 것입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영문 안내판에 세종대왕이 Korean Language를 발명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뜯어고친 일이 바로 얼마 전의 일이 아닙니까? 미국 교포 집에서 아이가 손님에게 영어로 인사를 하니 “한글로 인사해야지”라고 했다고 한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일 것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내세울 때 대부분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제자원리(制字原理)에 머물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것이 없는 자랑거리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한글이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은 사실 그 다음부터의 설계에 더 많은 자랑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28자면 28자를 뿔뿔이 만들지 않고 자음의 경우 기본자 다섯 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거기에 획을 덧붙이면서 만들어, 말하자면 이원적(二元的)인 구조로 만들어 조직성을 높였습니다. ‘ㄱ’과 ‘ㅋ’은, 또 ‘ㄷ’과 ‘ㅌ’은 각각 어떤 공통성이 있는 발음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게 해 주고, ‘ㄴ’과 ‘ㄷ’ 및 ‘ㄹ’과 ‘ㄷ’을 배우고 나면 ‘ㄴ’나 ‘ㄷ’만 알면 ‘ㄴ’과 ‘ㄷ’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모문자(字母文字)이면서도 ‘ㅅㅇㄴ’이나 ‘ㅎㅡㄹㄱ’으로 풀어 쓰지 않고 ‘손’ 및 ‘흙’으로 묶어 쓰는 이른바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아쓰기를 위해 한글은 초성(初聲), 즉 자음 글자와 중성(中聲), 즉 모음 글자를 완전히 다른 계열의 모

양으로 만든 것도 한글의 큰 특징입니다. 가령 로마자의 F와 E가 글자 모양으로 한쪽은 자음이고 다른 한쪽은 모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자음 글자와 모음 글자를 그 제자원리에서부터 달리 출발하여 완전히 다른 계열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ㅏ/ㅑ/ㅓ/ㅕ’ 등 수직으로 된 것은 ‘파/너/키’처럼 초성의 오른쪽에 쓰게 하고, ‘ㅗ/ㅛ/ㅜ’처럼 수평으로 된 것은 ‘코/무/그’처럼 초성의 아래쪽에 쓰게 한 것, 그 디자인의 세심함은 보면 볼수록 탄복을 자아내게 합니다. 디자인 이야기가 났으니 말인데 자음의 경우도 가령 ‘ㄱ’자를 그 소리를 낼 때의 혀의 모양을 본떴다고 하지만 혀의 모양이 그렇게 직각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모아쓰기를 전제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 초성들을 종성(終聲)으로 다시 쓰게 한 아이디어까지 동원하여 모아쓰기라는 놀라운 철자법을 창안해 냈는데 저는 이 모아쓰기가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인들 중에는 한글이 다 좋은데 모아쓰기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풀어쓰기를 주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의 말을 되받아 한글이 다 좋은데 모아쓰기 때문에 더욱 좋다고 말합니다. 풀어쓰기는(*문자의 비중이 읽기보다 쓰기 쪽이 더 높다는,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그릇된 사고를 바탕으로 기계화의 편리를 앞세워 주창한 것인데) 모아쓰기를 전제로 만든 자형(字形)을 그대로 쓰기가 불편하니 이리저리 구부리고 비틀고 하면서 고유한 ‘ㄱ’자 모양도 ‘ㅏ’자 모양도 다 바꾸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글을 파괴하는 반역 행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말은 ‘앞이/앞으로/앞에서/앞까지/앞도’, 또는 ‘많다/많아서/많으니/많으면/많았다’처럼 명사는 명사대로, 용언은 용언대로 뒤에 조사나 어미들이 더덕더덕 붙는 대표적 첨가어(添加語)입니다. 이런 경우 읽기 편하게, 읽어서 바로 그 의미를 알게 해 주는 방법으로 모아쓰기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표음문자(表音文字)로 표의문자(表意文字)의 장점을 도입한 것인데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방식인 것입니다.

문자론은 오랫동안(*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부터 1960년대까지) 글자는 일단 소리로 환원되어야 그 단어의 개념을 알게 해 준다는 표음주의(表音主義)에 얽매어 표의문자는 불편하기만 한 나쁜 문자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근래에는 소리의 매개 없이 글자에서 단어의 개념으로 직행하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한자(漢字)와 같은 표의문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표음문자로도 표의문자의 장점을 살리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쪽으로 이론이 발전하였습니다. 그 이상(理想)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한글맞춤법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외국 학생들에게 한글맞춤법을 괜히 학리(學理)를 앞세운 불편한 맞춤법이라는 태도로 가르치기보다 그 뛰어난 점을 일깨우며 가르칠 때 한층 학습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모두에 인용했던 머리말은 “한 뼉이라도 더 멀리 우리말이 세계로 뻗어나간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서러움쯤은 잊어도 좋을 것이다. 모국어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빌고 빌 뿐입니다”로 끝납니다. 오늘 제 이야기도 그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